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수요설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 41:1-13)

본문 속의 다윗은 몸이 많이 아픈 형편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깊은 병으로 인해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혀 왔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정말 사소한 문제로 여겨지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시 41:4)

어려운 일을 당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렬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는 그 자체만으로 최고의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중한 병을 앓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 것은 ‘은혜’는 결코 사람에게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은 적이 아닌 사랑의 떡을 나누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시 41:8-9). 이로서 다윗의 절망을 더 깊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시 41:12).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붙드시심은 얼마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털어 한 마디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롬 5:8)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며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Show Me Mercy!

(Psalms 41:1-13)

It seems to be clear that David looks seriously sick in the text. If we are fallen gravely ill by sickness before death, most problems that have given us trouble until now might be really a small matter.

In this situation, David longed for God’s mercy.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 said, ‘Have mercy on me, LORD, heal me, for I have sinned you.’” (Psalms 41-4)

If we long for God’s mercy by facing a difficulty, we naturally look back our life and realize our sins. And we confess with a humble mind. Confession should be great mercy by itself.

While David was seriously ill, they knew very well that he earnestly prayed to God, repented of his sin before God, and God would show him mercy who is the Almighty God creator, God of eternal love.

Those who betrayed David were close friends who were not enemies and shared a bread of love (Psalms 41:8-9). And this,

David might fall into despair deeply. Nonetheless, he confessed his faith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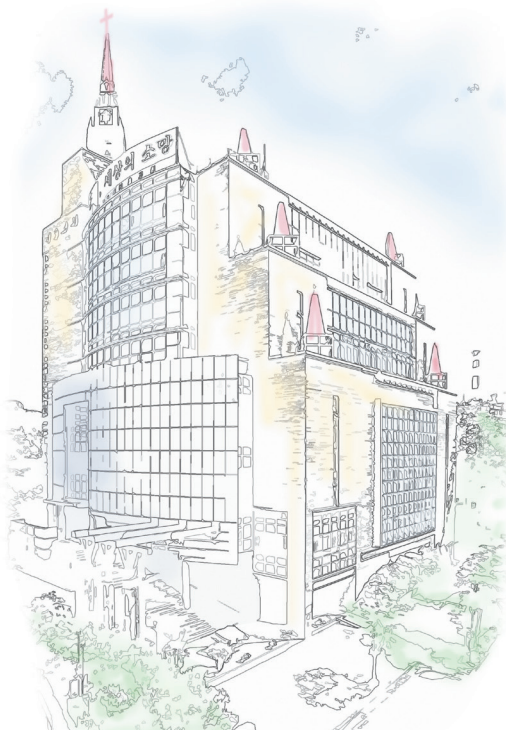
“Because of my integrity you uphold me and set me in your presence forever (Psalms 41:12).

The Lord always upholds us in the integrity. His holding does not disappear after a few days but exists eternally.

My dear beloved Christians,

If we summarize Jesus Christ’s life and work collectively in a word, it is ‘grace’. Paul the Apostle says tha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s for us (Romans 5:8).

If we really need something, it is God’s grace. If we beg something that we need, it is God’s grace. By receiving a flow of God’s grace as a person who grants grace to many people,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the people of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성탄절기 주요행사

오늘 찬양예배 시 / 할렐루야찬양대-'사랑의 왕' 칸타타 찬양드려

서울교회는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 중이다.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 오광환 장로)가 준비해 올리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고성진 집사의 지휘로 "사랑의 왕 (Roger Strader곡)" 11곡 전곡을 찬양한다.

다음 주 18일(주) 찬양예배 시 교육부서 성탄 축하 특별행사가 있다. 이 행사는 유아·유치부의 성탄 찬양 및 율동으로 시작하여 유년부 엔젤스(반짝 반짝 성탄별), 초등부 글로리아(산타만 있던 크리스마스)

스), 중·고등부 연합찬양대(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외2곡), 유·초등부 연합 찬양대(승리의 크리스마스), 유년,초등,연합2부(크리스마스 편지)로 이루어진다.

성탄절 당일 25일(주)에는 새벽 5시에 성탄절 새벽예배를, 25일이 주일인 관계로 성탄절 축하예배는 주일예배로 드리며 성탄감사헌금을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즐거운 성탄절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2016년도 제2학기 신앙강좌부 수료자

송용훈 박현영 서은석 채교천 박혜선 김종철 김철주 이진숙 이영조 이명자 정금희 홍승전 황정옥 박석현 이태정 김예환 구연복 유덕자 남태영 하숙 장호림 이정연 홍현미 이덕빈 황일운 김미자 문희옥 이흥숙 송인덕 송인현 정복순 서병권 조은정3 강만순 이윤희 정병무 박경희 최봉애 조복자 곽태수 오교식 김진달 김옥순 임병석 전미경 이인숙 이상섭 박정자 박연옥 민의량 손용문 최종금 신충균 김정숙8 광숙 고경자 최원자 이은상 임종태 고영숙 안선광 조상계 최주희 박동희 이은옥 이은희 김경진 김혜중 박희서 김철수 김서윤 김재일 이종욱 이재경 김춘호 김희동 이은신 황선희 김애리

(총 79명)

청년1,2부 2017년도 회장단 선출

청년1, 2부는 지난 11월 총회를 열고 2017년도 회장단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다.

- 청년2부 회장 박유진, 부회장 성모세
- 청년1부 회장 김영기, 부회장 정상준

이종윤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II

1. 내게 배우라

'나를 배우라'고 하신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학교는 모든 신자가 등록해야 하며 졸업이나 수료가 없이 주어진 인생동안 계속 배워야 하는 평생대학이다.

이 학교 졸업식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즉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다.

1) **흠정역(KJV)에서는 learn from me라 하지 않고 learn of me로 번역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로서가 아니라 그를 배움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 아버지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작용만은 아니다.

패커(J. I. Packer)는 그의 저서 'Knowing God'에서 '어떤 것에 관하여 아는 것(knowing about something)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어떤 것을 아는 것(knowing something personally)과 단순히 사람 아는 것(knowing a person)을 구별하고 있다.

가령, 우리가 중국에 대해 책이나 방송, 신문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라 사람 특히 책임 있는 이를 만나면 책이나 매스컴을 통해 얻는 지식과 또 다른 것을 발견케 된다. 중국 사람을 통해 중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 지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에 관하여도 아는 지식에 단계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아는 것, 자연, 성경, 성령을 통해 성경을 해석한 것을 통해 알게 된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고로 하나님 지식은 죄로 물든 우리 지식 범위 내에서 알려진 지식이다.

패커(J. I. Packer)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려면
a.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자신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해석을 받아야 한다.
b.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그의 말씀과 사역으로 안다.
c.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드리고 그의 명령하신 바를 행함으로 안다.

d. 하나님과의 교제에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사랑을 인식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이 피조물이고 죄인임을 알게 된다.

2) **'내게 배우라'는 말은 예수그리스도를 선생님이로 모시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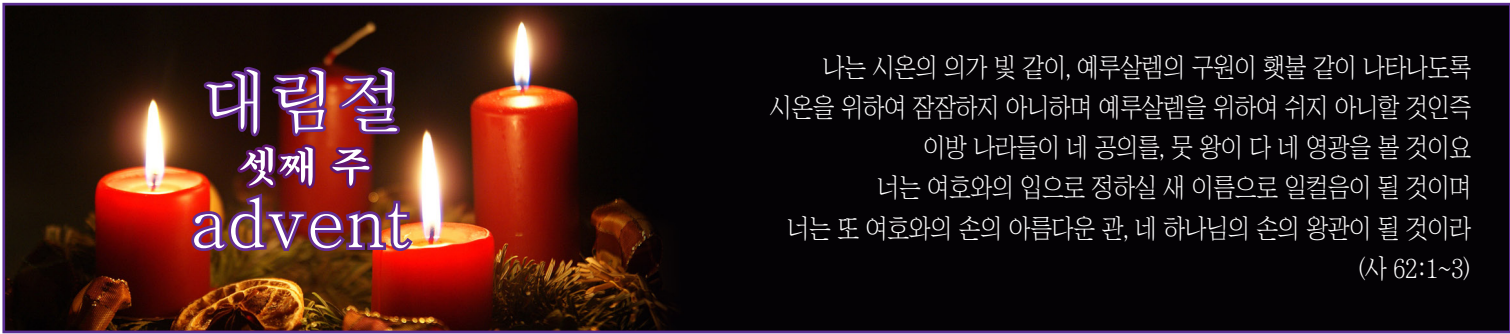
NIV에서는 learn from me로 번역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14:25-26)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요16:13-14)

예수님에 의하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어 신약성경을 기록케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지식을 더해가게 하셨다.

이처럼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은 내 멍에를 메어라 하신다.

(다음 주 계속)



안식년규정, 2000년 10월 8일(주) 공동의회에서 통과돼

노문환장로(당회 서기)

박노철 목사는 2011년 담임목회 이후 장로들의 안식년규정을 매년 스스로 집행하였고, 자신도 안식년규정에 따른 재시무투표를 받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후반 들어 담임목사의 안식년이 점차 가까워오자 갑자기 위 안식년규정이 상위법인 총회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에는 안식년규정이 성도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은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자신도 내년 안식년을 지키지 않을 것임은 물론 이미 약속한 재시무투표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여 부득이 일부 장로들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년 담임목사의 안식년 시행에 따른 직무정지처분 신청을 하였고 지난 12월 7일 이에 관한 심리가 열렸다.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2000년 9월 27일 그 시행을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당회 결의절차를 거쳐, 같은해 10월 8일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성도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 당시 당회의안과 공동의회 회의록, 순례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일찍이 안식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 서울교회 당회원인 목사·장로들은, 1998년 안식년제의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안식년규정을 제정하였고 그 안식년규정의 첫 적용을 받게 되는 2000년 9월 27일 당회에서 안식년제 도입을 공동의회에서 허락하기로 한 후 같은해 10월 8일 찬양예배 후 개최된 공동의회에 '목사·장로 안식년제 시행의 건'을 상정하여, 적절한 결의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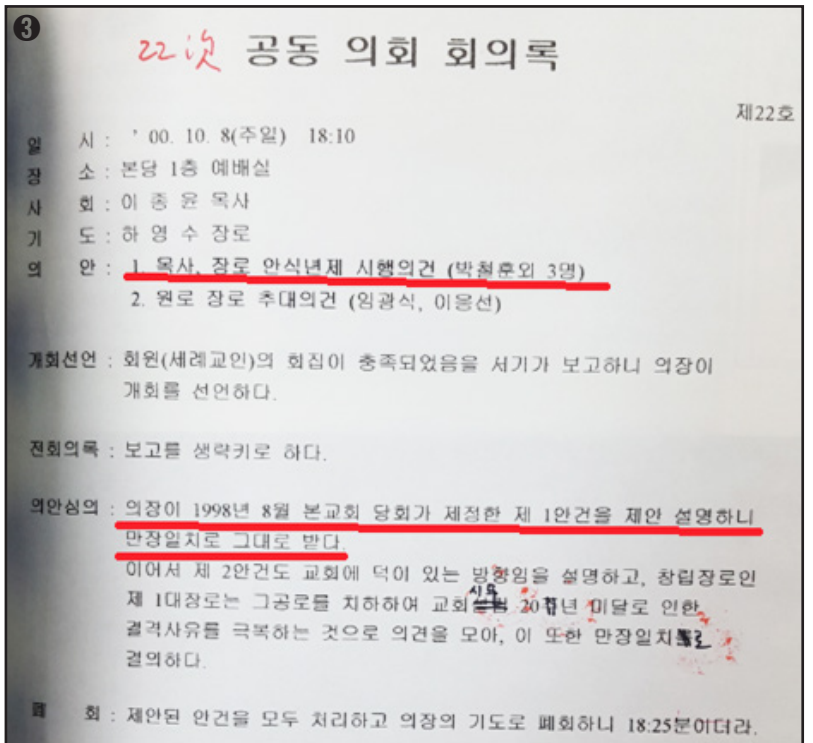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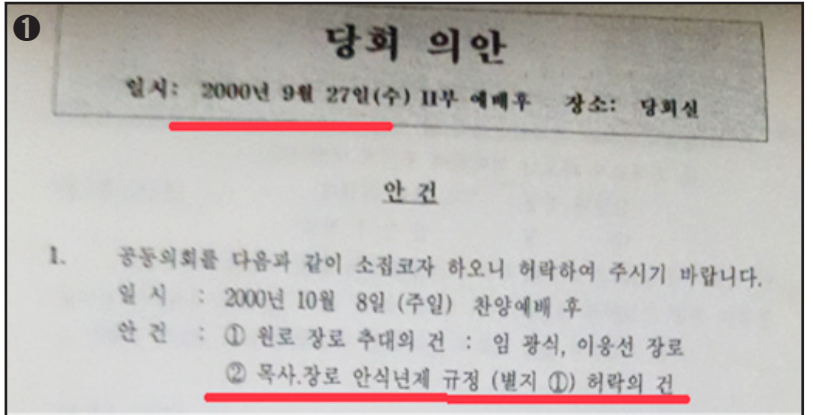
서울교회의 목사·장로임기제 채택은 『월간조선』 2000년 1월호 별책 단행본으로 출판된 '한국인의 일생- 통계를 통한 한국인의 재발견' 74쪽에 '20세기한국교회10대 사건(시대순)'에 선정된 바,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목사와 장로의 신앙과 자질을 재평가 받으므로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또한 박노철 목사는 2015년 12월 27일(주) 찬양예배 시, 하인선 장로안식년제 시행 시 "우리교회는 장로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6년 동안 경작을 하다가 7년에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년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안식하시면서 더 많이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다른 교회들도 둘러보면서 우리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하는 안식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담임목사는 물론,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였던 일부 성도들은 더 이상 안식년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규정에 따른 안식년 시행과 재시무투표가 교회의 법과 규정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담임목사는 성도들 앞에 교회의 법과 규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

- ① 2000년 9월 27일(수)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안건으로 다룬 당회의안
- ② 2000년 10월 8일(주) 순례자의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기사
- ③ 2000년 10월 8일(주) 찬양예배 후 열린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위한 공동의회 회의록 - 만장일치로 그대로 받음



크리스마스 칸타타 - 할렐루야 찬양대

사랑의 왕



오광환 장로
(할렐루야찬양대
대장)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년 이맘 때 대림절이 되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땅의 낮은 말구유에 탄생하신 아기예수를 기념하며, 이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성탄절기를 앞두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드립니다.

랑의 왕) 11곡 전곡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기쁨과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이 나라와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특별 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할렐루야찬양대(대장 : 오광환 장로)의 ‘성탄 축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고성진집사의 지휘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사랑의 왕 (Roger Strader곡)”을 찬양한다.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집사, 피아니스트 김양언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연주하고, 나레이션은 흥만유 집사가 담당한다.

특별히 다사다난했던 을 한 해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 구속의 주로 오신 평강의 왕, 소망의 왕, 위로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더욱 고대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절에, 이 세상 죄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실 평강의 왕, 사랑의 왕을 여러 성도님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원 모두가 정성껏 마음을 모아 드리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Roger Strader의 사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3일(화) 미래한국미디어와 세이브 N.K가 주관하는 송년의 밤과 김상철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에서 말씀을 증거한다. 그리고 자유, 정의, 평화상 시상식을 갖는다. 14일(수) 한국교회 군선교의 밤 행사에 참석한다. 16일(금) Save N.K. 이사회를 소집하고 17일(토)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회의 31차 월례기도회, 27회 종교개혁신학 특강 그리고 종교개혁500주년기념 공동학술대회 준비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 전시 : 오영숙 권사(12교구) 『2016 용인시문예회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6인展』 12월 06일~12월 17일 용인포은아트갤러리

■ 주일식당봉사 : 한나 전도회(12.11) 에스더 전도회(12.18)

■ 금주의 식사제공 : 백승갑 집사 박갑자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호산나대학

미래를 꿈꾸는 청년으로

안녕하십니까?

호산나대학에 재학중인 양현준학생이 거주하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자신보육원 원장 김정도입니다.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준이가 호산나대학에 입학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의견이 많았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과연 그 많은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부모님이 안계시고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과연 가능한지에 대하여 시설차원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호산나대학의 관계자분들과 특히, 이동귀부학장님과 의 상담을 통해 현준이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번 고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서울교회의 장학금과, 살림권사회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현준이의 학교생활을 응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준이를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현준이의 영원한 아버지되심에 의지가 되고 평안해집니다. 현준이는 호산나대학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향상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현준이가 장애를 극복하고 기능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꿈꾸고 희망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 후 현준이는 많이 밝아지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한 가족체육대회에 시설담당교사와 참가하며, 사랑이 가득한 학교라는 확신이 더욱 확고 해졌습니다. 하지만 2학기 등록을 앞두고 다시 한

자신보육원 전직원과 원생들은 서울교회 성도님과 특히 살림권사회에 머리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자신보육원 시설장 김정도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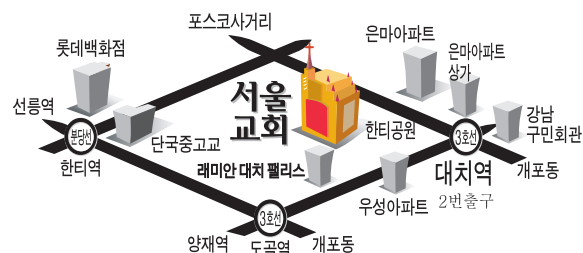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랑과 평화의 햇살이 될 수 있도록
2.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3.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